

제자도의 원리
(누가복음 14:25-27)

신앙의 목적은 영생, 즉 구원과 상급입니다. 구원의 완성, 더 큰 상급은 제자도를 따라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제자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고 편한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어 찾는 자가 거의 없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마 7:13-14). 십자가의 길 끝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제자도를 따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도를 따르는 신앙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 제자도의 값지름

예수님은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자신을 능히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공경, 가족 사랑을 예수님께서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해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자도의 값지름이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얻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아버지의 장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눅 9:59-60). 인륜을 무시하고 매정한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따르기 싫어 누구나 받아들이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장례를 핑계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세상 것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것을 언제나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릴지는 전적으로 자기 선택입니다. 다만 스스로 선택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 제자도의 원천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자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자도와 정반대인 세상 원리대로 살아온 습관이 몸에 깊이 배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누구나 세상 원리대로 행하려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적인 습관에 물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마 16:24).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이 두 가지가 제자도의 핵심 원칙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의 완벽한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써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편하게 사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제, 곧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고, 죄가 없는데도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약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 어떤 자존심도 부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십자가의 고난이 오더라도 피하지 말고 감당해야 합니다. 예컨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가족과 먼저 작별하는 일이 당연해 보여도 가족에 미련이 남아 있고, 하나님 나라보다 인정을 우선하면, 결국 언젠가 예수님을 떠나기 마련입니다(눅 9:61-62).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남으로서 가족과 집안일은 전혀 돌보지 않은 채 사역에만 전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2:48-49).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의 영적인 관계를 우선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반드시 충돌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입니다(요 15:18-19).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고난을 피하면 신앙은 세상이 원하는 종교로 변질됩니다. 손해와 희생을 피하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만약 자기 삶에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 자신이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을 잘하면 잘할수록 고난이 큰 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불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려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합니다(고후 4:10-11).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이런 제자도의 원리를 알고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제자도의 원리를 모르고 믿지 않으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온갖 요령을 피우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피하면 나중에 훨씬 더 큰 고통이 주어집니다. 죄의 저주 아래에서 신음하다가 결국 영원한 심판의 고통에 빠집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절호의 기회이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감당함으로써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신앙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의 예배로
人生이 바뀐다

여호와의약막림 서은실 집사



일곱번이 넘는 허리디스크 수술과 시술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점점 악화되어 누울수조차 없게 되어 서서 잠을자야 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돈을 버니 옹하다는 병원, 한의원, 척추교정, 돌침 할아버지까지 안 다니는데 없이 다녔지만 차도가 없었고 2년동안 잠을 자지 못한채 생활하다 보니 다리를 자르면 잘 수 있을까? 정신까지 이상해 졌습니다. 돈으로도 안되는 삶을 살았고 남편도 자녀도 다 소용없다는 생각과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일이 꼬이고 안되는 인생으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물증이 있었던 친구가 미용실에 오게 되었는데 이전과 다르게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가보지 않겠냐고 했지만 저는 거절 하였습니다. 친구가 좋게 변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상한데 빠진 것 같아 의심도 갔습니다. 집앞 교회도 못다니고 있는데 평택서 웅인까지 말도 안된다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는 계속 찾아 왔고 청소도 도와주며 하지 말라고 해도 말없이 일을 도와주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그 친구를 의지하게 되었다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고 친구가 딱 한번만 교회에 와보라는 권유로 기쁨의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색하게 앉아 있던 저는 찬양이 시작되자 제 안에 알 수 없는 마음과 눈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 꼭 참고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울면 안되지 하며 털어 버리려 할때 난생 처음 마음가운데 따뜻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떨아 잘 왔다" 저는 잘못 들었나 생각했지만 다시한번 마음가운데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안다" 그 순간 참아 왔던 눈물이 폭포수 같이 터져 나오며 나는 혼자라 여기며 살아왔고 내 아픔과 고통은 아무도 모른다 여겼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말쑤이 저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예배이후 가슴 한 가운데 있던 돌덩이가 빠져 나간 것 같은 가벼운 마음이 되며 원지는 모르겠지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소원함이 들어 평택에서 웅인까지 멀다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어 졌습니다.

교회 다닌지 일년정도 됐을 때 영영미를 검사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통증의학과를 알아보고 간 곳에서 영영미에 이상한 것이 있다며 큰 병원으로 가보라 하였고 MRI를 찍게 되었는데 영영미에 종양이 있다며 자세하게 설명도 안 해준채 수술해 줄 수 없다 했습니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수술해 줄 수 없다 하였고 마지막으로 제일 큰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교수님께서 MRI를 보시고는 사실 이 수술은 의사가 해주고 싶지 않은 수술이라며 허리와 다리로 가는 제일 굵은 신경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영영미 부분에 아이 주먹만한 종양이 딱 붙어있어서 아무리 수술을 정교히 잘해도 신경을 건들 수 밖에 없기에 평생 반신불수로 살던가 수술을 안하면 더커지고 퍼져서 죽을 수 밖에 없다 하십니다.

남편은 심난한지 술을 더 먹고 다녔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 만큼 두렵거나 걱정이 되지 않았는데 기도 할 때 "내가 친히 수술 하리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수술하겠다면 하나님께서 수술해 주신다고 말하니 미쳤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 교수님께서 떼어낸 종양을 보여 주시며 남편에게 '이건 기적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였고, 남편은 수술 전 제가 한 말이 생각나 놀랐지만 표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치유받은 이후 새로운 삶으로 저를 인도하시며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겪었지만 믿음을 주시고 전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러 주시고 구원뿐 아니라 질병까지 치유해 주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나의 인생 간증
기쁨의교회는 예배 때에 예수님으로 변화된 간증을 발표합니다.

저는 1남 2녀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지만 믿음이 좋으셨고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혈기가 많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혈기와 첫째라는 이유로 많이 맞고 자란 저는 아버지 성격을 닮아 고집세고 혈기 많고 내 뜻대로 안되면 화를 내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사춘기 시절 정말 속마음이 썩이는 자녀였고, 24살 어린 나이에 동갑인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한 남편은 밖으로만 돌았고, 아들 셋을 낳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사업을 하며 음주가무는 더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막내아들이 아빠를 옆집 아저씨처럼 낮을 가려서 가지 않았습니다. 저의 20대를 과부와 같이 생활하며 도저히 이대로는 안되겠다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했고 미용일을 하고 있던 저는 세 아들을 책임지기 위해선 미용실을 차려 돈을 벌어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어린막내를 맡길곳이 없어 따로 업고 일하게 되며 도와주지 않고 여전히 밖으로도는 남편 때문에 저는 술로 마음을 달래며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어느날 왼쪽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며 며칠 지나면 나아질거란 기대와 다르게 고통이 심해져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 기쁨의 교회 뜻대

『전도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기쁨의교회 방송 설교 안내 - CTS TV : 매주 금요일 오후 7:30 / 생명의 말씀

- 1) 케이블TV: 웅인(기남방송 222번), 광주(C&M 700번)
- 2) IPTV: Sky Life 183번, KT olleh TV 236번, Btv 551번, U+ 180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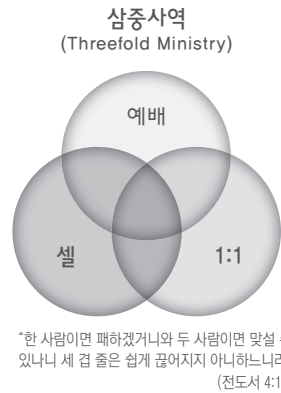
기쁨의교회 라디오 설교 안내 - 서울극동방송 : 매주 금요일 오전 11:45 ~ 11:55 / 빛을 따라서

극동 방송 서울,경기: 106.9 MHz

기쁨의교회 라디오 설교 안내 - 영동극동방송 : 매주 토요일 오후 1:00 ~ 1:30 / 오늘의 양식

극동 방송 강원 영동: 90.1 MHz

▶ 기쁨의 교회 사역전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12)

▶ 기쁨의 교회 오시는 길



▶ 기쁨의 교회 특징 10가지

- 1.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쁨의교회는 성령이 주시는 살아있는 강력한 영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 2.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능력있는 철야 기도, 성도 개개인의 기도의 삶을 통해 영적전투에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 3. 찬양이 살아 있는 교회**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되어 기쁨과 자유함으로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 4. 전도와 간증이 있는 교회**
삶이 변화되는 교회,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교회, 실제 삶의 간증으로 가족, 이웃, 직장, 알방을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 5. 성령의 삶을 사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의 삶을 살기에 힘쓰며 영적 실업자가 없게 하는 교회입니다.
- 6. 교제가 풍성한 교회**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축축한 단비와 같은 성도간의 영적인 교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셀은 영혼의 축복의 장입니다.
- 7.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기쁨의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 8.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교회**
기쁨의교회 성도의 얼굴에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 9.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치유와 변화, 성령의 은사, 자유함 등 세상에서는 변화될 수 없는 놀라운 삶의 변화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입니다.
- 10. 제자를 세우는 교회**
기쁨의교회는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훈련받고 가르치며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니라 인생이 변화된 제자를 세웁니다.

▶ 대중교통 안내

- **지 하 철**
 - 신분당선 동천역 하차 후 2번 출구 마을버스 31번 타고 삼성래미안 2차 정문 하차.
 - 분당선 죽전역 하차 후 마을버스 26-1,31,68,670번 타고 삼성래미안 2차 정문 하차.
 - 분당선 구성역 하차 후 3번 출구 마을버스 31,33,34,26-1,34-2번 타고 삼성래미안 2차 정문 하차.
- **좌석 버스**
1241 (강남역 10번 출구 360m직전 유희빌딩 앞 →미금역→오리역→교회→청역)
- **일반 버스**
68 (수지구청→교회→동백→웅인시외버스)
670 (광교→수지구청→교회→에버랜드)
- **마을 버스**
26-1 (죽전역 1번 출구→칼빈대→교회→(구)경찰대)
31 (동천역 2번 출구→보정역→구성삼거리→교회→청역중학교)
33 (미금역 3번 출구→오리역→보정역→구성삼거리→교회→기흥역 3번 출구)
34 (오리역 4번 출구→보정역→구성삼거리→교회→광도와이드빌)
34-1 (기흥구청→교회→경찰대→효성빌라)
34-2 (구성역 3번 출구→교회→광도와이드빌)

교회 : 경기도 웅인시 기흥구 구성로 96 Tel. 031-713-0691 Fax. 031-713-0692 www.joyfulchurch.org
MTC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태재로 119 Tel. 031-711-0191 www.mtcministry.org

2024년 교회 표어

네 밭에서
신을 벗으라

주일에배

새것을 취하는 신앙

마가복음 2장 18-22절

18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

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가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

할 수 없느니라

20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
니라

21 생배 조각을 낚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낚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22 새 포도주를 낚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
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쁨의교회

담임목사 정 의 호
제2024-50호 통권 6869호
12월 15일

